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3월 17일

ISSN 1976-0507 Vol. 2 No. 6

동유럽 금융위기의 파급전망과 시사점

이 철 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이 현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3460-1226)

- ▣ 최근 동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요동침.

 -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최근 동유럽 금융위기가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서유럽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서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함.
- ▣ 동유럽의 금융위기 심화가 서유럽 은행들에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악영향을 미칠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결고리로 동유럽 금융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다소 과장됨.

 - IMF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여타 서유럽 은행들은 위험분산이 이루어져 동유럽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가 오스트리아 은행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 향후 동유럽 위기는 EU 차원의 지원책 확정 지연, 일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일부 국가 디폴트 직면'이라는 상황으로 심화될 수 있음.

 - 이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국내금융시장에서 서유럽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가능성도 상존하며, 동유럽에 대한 수출 차질이 우려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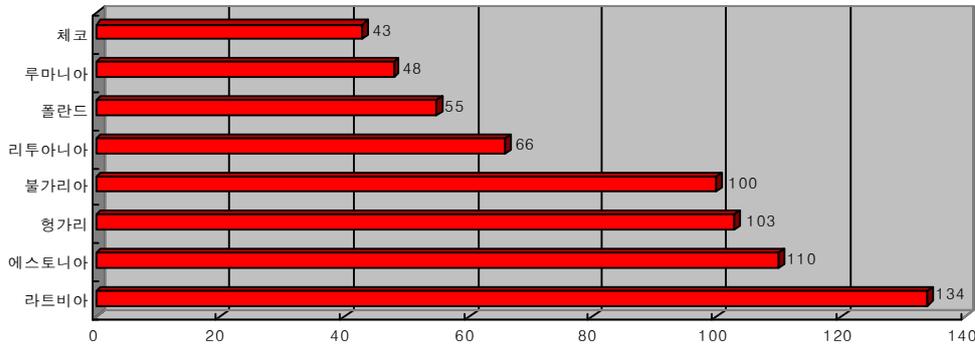
1. 최근 동유럽¹⁾ 금융위기 실태

- 최근 동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요동침.
 - 헝가리, 라트비아 등은 이미 2008년 10월 말 이후 급격한 유동성 부족으로 ECB, IMF 및 World Bank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국가들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발칸 국가들도 이미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였거나 요청을 검토 중임.
 - 일각에서는 동유럽의 이러한 금융위기 심화가 서유럽으로 확산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제2라운드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Financial Times 2009년 2월 17일자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최근 동유럽 금융위기가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서유럽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서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함.
 - 즉, 동유럽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디폴트 상황에 처할 경우 이는 유로존 은행들의 급격한 부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서유럽으로 위기가 확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무디스의 분석임.
-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해외로부터 차입한 은행차입금만 해도 약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이 중 90% 이상이 서유럽 은행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외부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라트비아로 GDP 대비 134%에 달하며, 헝가리와 에스토니아 등도 100%를 초과하고 있음.
 -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라트비아가 343%에 이르며, 이밖에 에스토니아(330%), 헝가리(158%), 리투아니아(135%) 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1) 동유럽이라는 개념은 동서냉전시대의 정치적 산물로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아주 모호한 지역 분류임. 때로는 CIS 지역을 제외한 중·동구(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를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를 일부 혹은 전부 포함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터키를 포함하기도 함. 최근 동유럽 위기 관련 여러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주로 위험정도를 강조 혹은 과장하기 위해) CEE 국가 외에 CIS 국가 중 일부를 동유럽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 본고에서는 CEE 국가들 가운데 최근 EU에 가입한 10개국을 주요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고, 다른 분석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선에서 동유럽에 대한 해당 분석에서의 정확한 정의를 확인, 표기함.

그림 1. 동유럽 국가들의 대외부채 현황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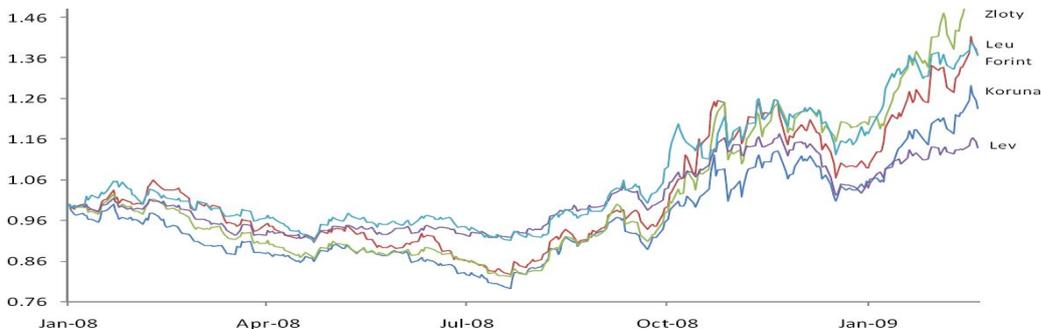


주: 1) 2007년 말 기준, 동유럽의 EU 신규회원국 가운데 유로존에 이미 가입해 있는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대상에서 제외.
자료: Fitch.

■ 이러한 우려로 동유럽 금융시장은 최근 급격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국화폐의 환율 절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가 폭락이 거듭되고 있음.

- 2009년 1월 초 이후부터 2월 말 현재까지 헝가리의 포린트화는 달러 대비 무려 25.4% 절하되었으며, 폴란드(25.2%), 체코(17.0%), 루마니아(15.9%) 등도 최근 급격한 환율 절하가 이루어짐.
- 이처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유로화에 페그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발트 3국의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등 문제가 보다 복잡함.
- 또한 주식시장 규모가 비교적 큰 폴란드와 체코의 주가지수가 최근 3년 만의 최저치를 계속 갱신 중이며, 주식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헝가리, 루마니아 등도 주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 동유럽 EU 신규회원국들의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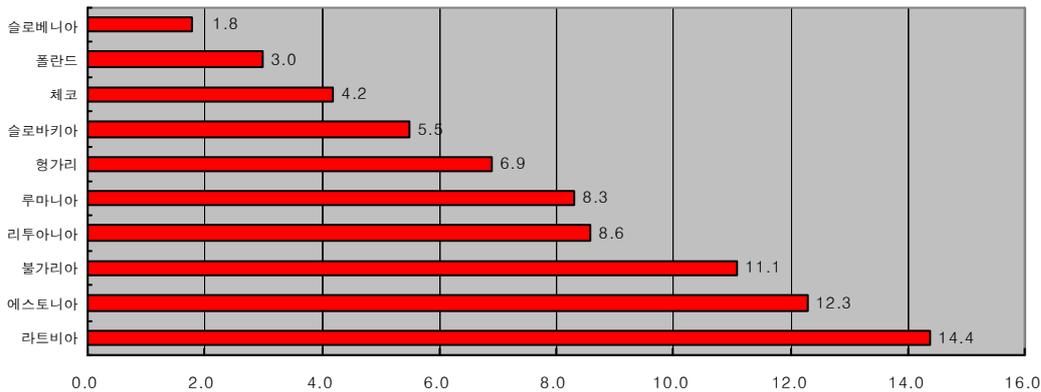


주: 2008년 1월 2일 = 1 기준, 폴란드의 Zloty, 루마니아 Leu, 헝가리 Forint, 체코 Koruna, 불가리아의 Lev 등의 대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2. 동유럽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

- 동유럽 국가들의 이와 같은 금융위기는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서유럽 은행들이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동유럽으로부터 자금을 급히 회수하면서 촉발됨.
 -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지나친 대내외 수지 불균형 등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취약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것들임.
 - 결국 동유럽 금융위기는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서유럽 금융기관이 동유럽으로부터 급격한 자금회수를 단행하면서 촉발되었고, 경제편더멘탈의 취약성이 심각한 국가들에 대한 신용경색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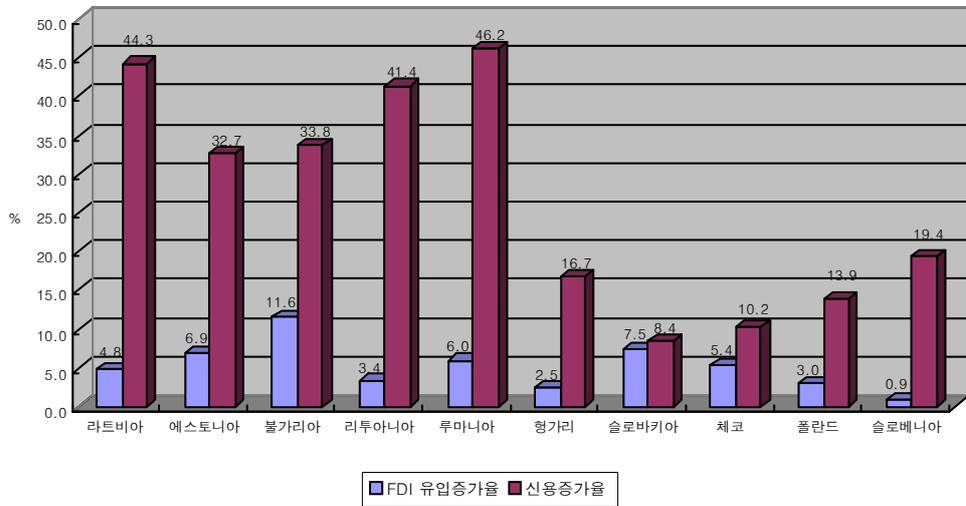
그림 3. 동유럽 EU 신규회원국들의 경상수지적자 추이



주: 2002~07년 평균 경상수지적자규모 GDP 대비 %.
 자료: Eurostat; IMF; ECB.

-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의 전형적인 경제성장 모델은 해외로부터의 FDI 유입, 해외은행 차입 등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전형적인 경제성장 모델의 지속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 IIF는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던 동유럽으로의 자금유입이 2008년 10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신흥시장국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의 유입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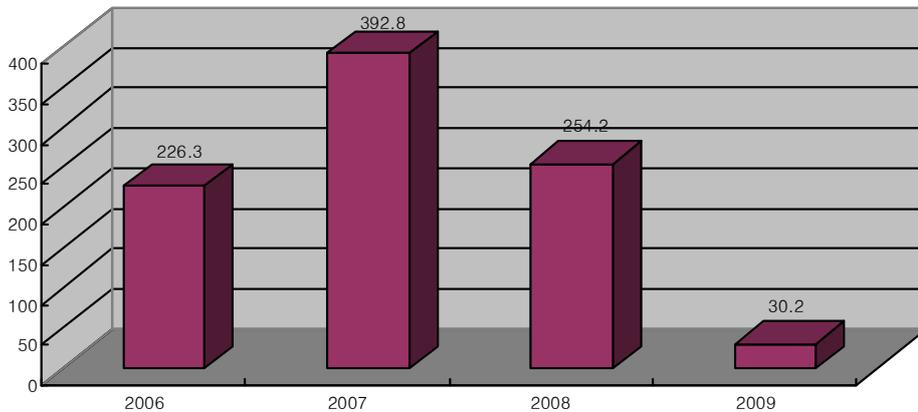
그림 4. 동유럽 EU 신규회원국들의 FDI 유입 및 신용 확대 추이



주: 2002~07년간 연평균 증가율(%).
 자료: Eurostat; IMF; ECB.

그림 5. 동유럽의 해외민간자금 유입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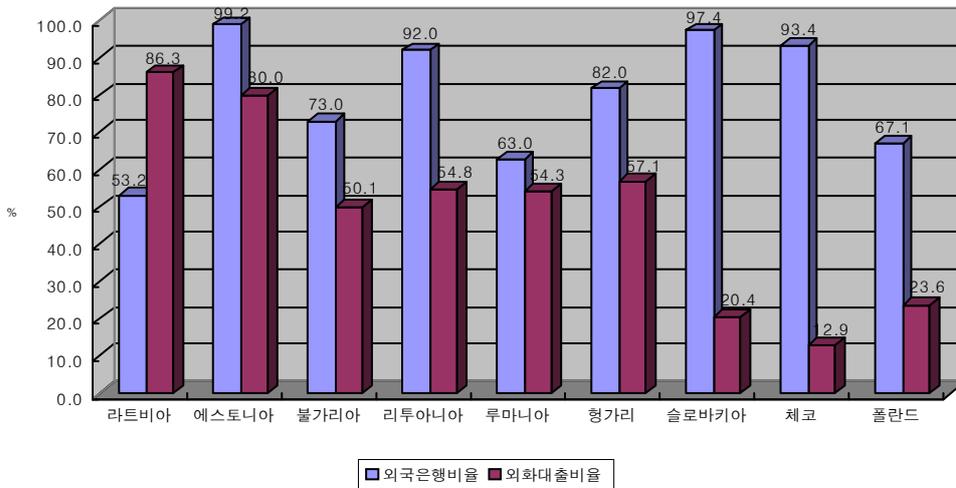
주: 러시아를 비롯한 CIS 주요국 포함, 2008년은 추정치, 2009년은 예측치.
 자료: IIF.

- IIF에 따르면, 동유럽으로 유입된 외자규모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연간 약 4,000억 달러에 달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신용경색을 경험한 2008년에 도 약 2,5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IIF의 2009년 동유럽 외자유입 전망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투자와 신용공여 측면에서는 순유출로 전환할 것이며, FDI 유입규모도 다소 줄어들어 2008년 2,542억 달러에 달했던 총 유입규모가 302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금융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현재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각국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평균적으로 약 80%에 달함.

- 서유럽 은행들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동유럽 시장에서 그동안 상당한 수익을 올려 왔으며, 동유럽의 기업 및 개인들도 비교적 금리가 싼 외화대출을 선호함.

그림 6. 동유럽 EU 신규회원국들의 외국은행비율 및 외화대출비율



주: 외국은행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동유럽 각국의 은행시스템에서 외국은행의 지분비율을 의미하며, 외화대출비율은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외화대출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IMF; ECB.

■ 그런데 최근 금융위기 심화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통화의 급격한 환율 절하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해외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자국통화 기준으로 더욱 가중됨.

- 이와 함께 글로벌 신용경색과 동유럽 금융위기 심화로 리스크가 급상승함에 따라 만기 연장이 어려워져 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단기외채의 상환압력에 시달려야 하는 악순환 국면에 접어들.

■ 이와 같은 동유럽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적극적인 동유럽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이와 함께 ECB와 비유로존 신규회원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유로화 이외의 신규회원국 통화 표시로 발행된 국채에 대한 ECB 차원의 대책 등 전격적이고 시의 적절한 정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정책 대응 및 금융위기 파급 가능성 점검

가.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이처럼 최근 동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자, 동유럽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뒤따르고 있음.
 - 동유럽 EU 신규회원국들 가운데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4개국 중앙은행은 지난 2월 23일 자국의 환율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은 지난 2월 27일 동유럽 은행시스템에 2년에 걸쳐 총 245억 유로(약 310억 달러)의 지원방안을 발표함.²⁾
- 이러한 동유럽 금융위기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정상회담과 EU 집행위원회 역내 부실은행 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등 EU 차원의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과정으로 지난 2월 22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IMF 재원을 두 배로 확대하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역내 은행권의 부실자산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³⁾을 발표하여 동유럽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EU 역내 은행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을 독려함.⁴⁾
- 지난 3월 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특별 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EU 차원의 일괄적인 동유럽 지원안 합의에 실패함.

2) EBRD는 동유럽 은행에 대한 주식 투자와 대출을 통해 60억 유로를 공급하고, EIB는 중소기업에 110억 유로의 융자를 제공하며, World Bank는 은행과 사회기반시설, 무역 금융 등에 55억 유로, 정치적 위험 보장에 20억 유로를 공급할 예정임.

3) 은행주주, 채권자, 국가의 책임분담 원칙하에 부실자산을 특정 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평가, 분류하여 국가에 의한 매입, 보증, 스왑 혹은 적절한 혼합의 형태로 문제의 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EU 집행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발적인 부실자산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여, 크게 배드뱅크 등을 통한 매입과 국가차원의 보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부실자산과 우량자산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EU 역내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라트비아에 대한 첫 번째 금융지원 분할금인 10억 유로를 지급하였으며, 위기의 기업에 기업당 50만 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헝가리의 국가지원책을 승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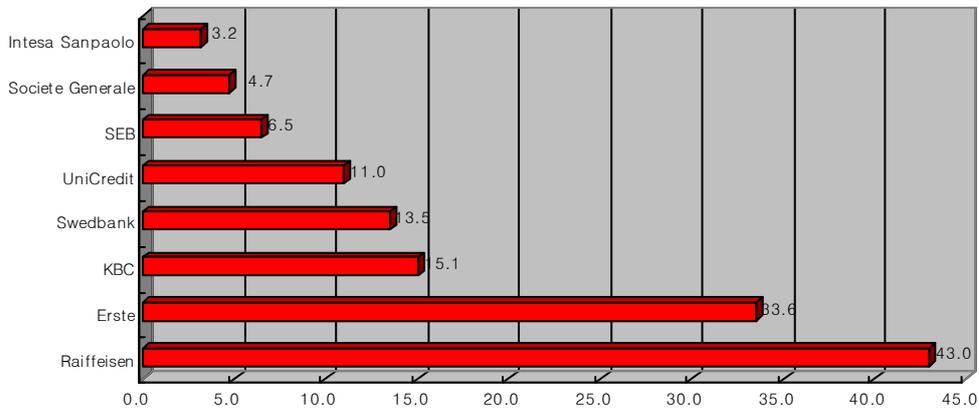
- 독일과 체코, 폴란드 등의 반대로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유럽권에 1,800억 유로 (약 2,28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구제금융안이 부결됨.
-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대한 개별적 지원 원칙에 EU 정상들이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개별 국가의 은행들이 동유럽권 자회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 사례별 적극적 지원의 길은 열어둬.⁵⁾

나. 동유럽 금융위기의 파급 가능성

- 동유럽의 금융위기 심화가 서유럽으로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경우만 살펴보면, 최악의 경우 동유럽이 디폴트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급격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동유럽 금융위기 심화로 부실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유로존 은행들로는 오스트리아의 Raiffeisen, Erste Bank,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 이탈리아의 UniCredit, Intesa Sanpaolo, 벨기에의 KBC, 스웨덴의 Swedbank, SEB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7. 서유럽 은행들의 동유럽¹⁾에 대한 대출

(단위: 총자산 대비 %)



주: 1) 동유럽 EU 신규회원국 10개국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등 포함.
 자료: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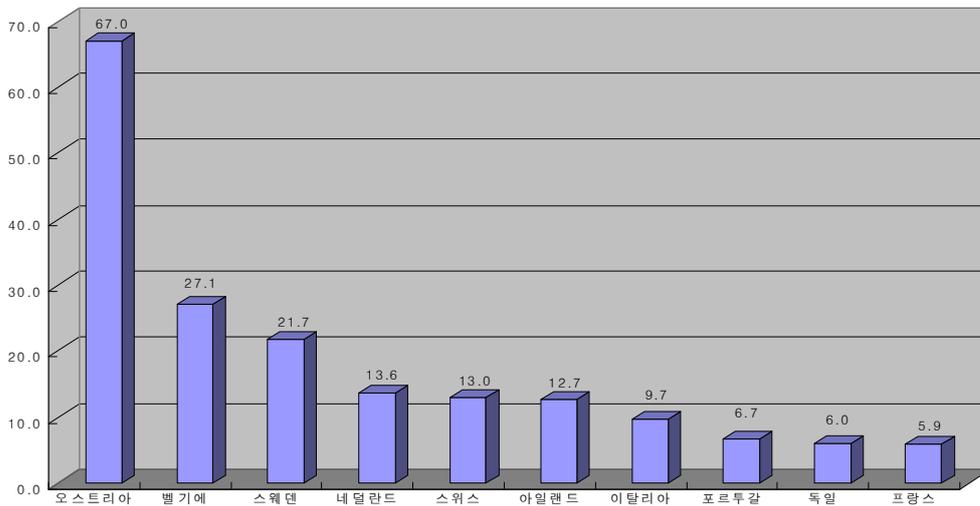
- 국별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은행이 유로존 은행권으로부터 동유럽으로 건너간 해외은행차입의 84%를 담당함.

5) 이탈리아의 UniCredit은 지난 3월 4일 동유럽 자회사에 대한 지원방침을 발표함. 동 은행은 2008년 9월 말 현재 총수익의 16.4%가 동유럽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약 3,700개의 지사를 동유럽권에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동유럽 해외은행차입의 50% 정도를 오스트리아 은행들이 담당하였는데, 동유럽 지역에 대한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대출은 GDP 대비 67%에 이르렀으며, 2007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 은행 총자산의 26%에 달하였음.

그림 8. 서유럽의 국별 동유럽에 대한 대출 규모

(단위: 각국 GDP 대비 %)



주: 대출액은 2008년 9월 시점 기준.
 자료: BIS; IMF; UBS.

- 동유럽의 금융위기 심화가 서유럽 은행들에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악영향을 미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결고리로 동유럽 금융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다소 과장됨.

- IMF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서유럽 은행들은 위험분산이 이루어져 동유럽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가 오스트리아 은행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⁶⁾
-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동유럽에 대한 대출이 많은 벨기에와 스웨덴 은행들은 동유럽에 대한 대출이 각각 자국 GDP 대비 27%와 22%, 자국 은행 총자산의 10% 미만이었음.
-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은행들은 동유럽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가 무시해도 될만한 것으로 IMF는 분석하고 있음.

- 최근 심화되고 있는 동유럽의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거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이 동유럽에서 동시 다발적인 통화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안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

6) IMF(2009. 1), "Regional Financial Interlinkages and Financial Contagion Within Europe," Working Paper.

- 인근 CIS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제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게다가 아직 EU에 가입하지 못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 발칸 국가들도 IMF와 국제금융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음.
- 그러나 무디스가 제기한, 서유럽 은행들을 통해 동유럽 위기가 서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향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보아야 할 것임.
- 현재 서유럽 경제는 동유럽 금융위기의 여파보다는 오히려 영국, 아일랜드 등의 금융기관 건전성 취약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자체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큼.
- 최근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서도 금융위기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기도 함.

4. 전망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동유럽 금융위기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빠른 시일내에 EU 차원의 적극적인 동유럽권 지원책 확정,⁷⁾ 국제금융기구의 시의적절한 지원과 동유럽 각국 정부 정책의 유효성 확보 등으로 동유럽 금융위기가 점차 진정되는 추세로 전개되는 것임.
- 두 번째 시나리오는 EU 차원의 지원책 확정 지연, 일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일부 국가(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디폴트 선언과 함께 서유럽으로의 전면적인 위기 확산이 전개되는 것임.
- IMF와 유럽 측 시각은 첫 번째 시나리오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 측 시각과 여타 신흥시장의 우려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보면 중립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임.

7)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기 EU 정상회담에서 위기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 IMF 기금 확대를 통한 동유럽권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임.

- 일반적으로 EU에 인접해 있으면서 EU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최근 IMF는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극복 의지가 충분하다고 밝힘.⁸⁾
- 국제금융기구와의 긴급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라트비아는 최근 경제위기로 지난 2월 20일 집권 연정이 붕괴되고 3월 4일 새로운 연정이 구성되었으나, 3월 중순 신정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소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무디스, 모건스탠리 등은 투자리포트를 통해 동유럽 위기의 서유럽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제된 위기 확산의 연결고리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와는 달리 위험요인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음.
- 동유럽 금융위기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밖에 유럽은행들로부터 국내에 유입된 자금, 대유럽 수출, 동유럽 진출기업 리스크 등에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유럽 금융위기가 서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 반영되어 거의 모든 신흥시장국의 환율 상승, 주가 하락, 차입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같은 형태의 악영향을 미침.
- BIS에 의하면 한국의 대외부채 가운데 서유럽으로부터의 차입은 65.3%인 2,09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동유럽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은행들로부터의 차입이 77%이고, 총 대출의 10% 이상을 동유럽에 대출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23%에 불과함.⁹⁾
-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큰 수출시장인 유럽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중기적인 수출 감소(특히 자동차 관련 제품)가 우려되며,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동차업체들의 현지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됨.¹⁰⁾
- 동유럽 금융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특히 수출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8) Reuter(2009. 2. 25일자).

9)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전체 대외부채 가운데 2009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외차입금은 245억 달러로 이는 1월 말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 2,017억 달러 대비 12.2%에 불과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왑까지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욱 작아짐.

10) 2월 2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의 2009년 1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생산이 시작된 현대차 체코 공장도 최근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 터키 공장은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66.4% 생산 감소를 기록함.

-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커다란 불확실성 제거로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서유럽 금융기관이 국내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금년 2월 들어 한 자리 숫자로 감소율이 줄어든 우리의 수출이 곧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서유럽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가능성도 상존하며, 동유럽에 대한 수출 차질이 우려됨.
-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서유럽 금융권의 본격적인 자금회수로 우리 금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러시아, 동유럽, EU권을 포괄하는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¹¹⁾

11) 현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동유럽 위기의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 수출이 추가적으로 4~12%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2009. 2. 26), 「동유럽 사태, 한국 외화유동성 위기 초래할 것인가?」, HYUNDAI Research.